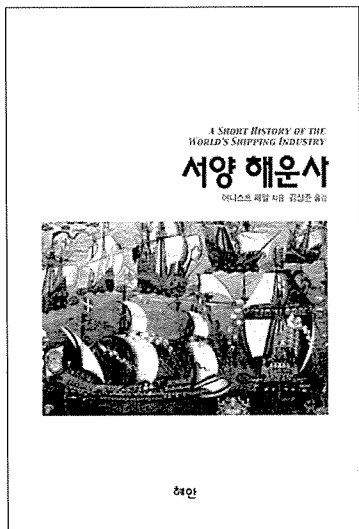




‘서양해운사’ 2006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 전임연구원 김성준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 전임연구원인 김성준 박사가 지난 2004년 3월 번역 출간한 어니스트 페일의 ‘서양해운사’가 2006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됐다.

‘서양해운사’는 어니스트 페일(Ernest Fayle)이 1933년에 출간한 ‘세계해운업 약사(A Short History of the World's Shipping Industry)’를 원전으로 한국해사재단과 한국항해항만학회의 출판비 지원을 받아 출간됐다.

고대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해운산업의 역사가 정리된 서양해운사는 장벽이자 한길로서의 바다를 제1장으로 시작해 고대의 바다 장사꾼들, 지중해시대, 북유럽 초창기 해운업, 대양항로의 개척, 잉글랜드의 대두, 일반운송인으로서의 네덜란드인, 항해법의 시대, 해운업의 이익-18세기 운송 무역, 클리퍼션 시대와 증기선 등장, 근대 해운산업의 발전과 조직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번역자인 김성준 박사는 머리말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해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해운사와 관련한 책이 출간된 적은 없다는 것은 세계 8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한 우리 나라의 자화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원서를 바탕으로 하되 원서의 誤植과 일역서의 오역을 바로잡아 전역(全譯)하여 출간하게 됨으로써 우리도 서양해운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세계 해운사 관련 글들은 대부분 지난 1957년에 고베대학 사사키 세이지(佐木誠治) 교수가 어니스트 페일의 원저를 번역한 세계해운업소사를 참고로 해왔다.

대한해운의 故이맹기 회장은 추천사에서 “해운업에서 과거는 지나간 옛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시해주는 훌륭한 경영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책이 해운 경영자들에게 좋은 경영지침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히며 일독을 권했다.

이 책이 추구하는 바는, 산업으로서 해운업의 역사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 즉 세계사적인 각각의 발전단계에서 상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유되고 운항되었으며, 이들 상선이 취향한 항로와 운반한 화물, 선박 소유자와 정부와의 관계, 배위에서의 생활 상태와 노동 조건을 해명하는 데 있다.

특히 중요기간산업중에서도 으뜸 가는 해운업의 각각의 발전 단계에서 세계 자원의 개발, 미개지역의 식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문명의 점진적인 형성에 끼친 공헌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번역자인 김성준 박사는 한국해양대학교 전임연구원으로 한국해운물류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유쾌한 해양상식... 콜럼버스의 달걀의 유래

콜럼버스 하면 으레 콜럼버스의 달걀이 먼저 떠오른다. 존 글렌이 제작한 ‘콜럼버스 : 발견’이란 영화에서는 콜럼버스가 대서양 쪽으로 항해하려는 것을 꺼려하는 선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달걀을 이용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선후를 뒤바꾼 오류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은 콜럼버스가 서인도에서 되돌아오고 난 뒤 벌어진 환영연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실의 진실 여부도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크기는 하지만 말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에 얽힌 이야기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565년이였다. 이탈리아인 지롤라모 벤조니(Girolamo Benzoni)는 ‘신세계의 역사’(A History of New World)라는 책에서 콜럼버스가 서인도에서 돌아오고 난 뒤 추기경이 주최한 환영연에서 바로 콜럼버스와 달걀에 관한 일화가 일어났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은 “환영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풍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에 소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달걀 세우기는 예전부터 다른 방법으로 해왔으나, 당시에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콜럼버스 이전에도 달걀을 깨뜨려 세웠다는 일화가 전해져오고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 미술사가인 바자리(Giorgio Vasari, 1511-1574)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 열전’(1550)에 ‘브루넬레스코(Filippo Brunellesco, 1377-1440)와 달걀’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중세에 변영을 누리던 피렌체는 1296년부터 대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건축 책임자가 원형 지붕(dome 또는 cupola)을 완성하기 전에 죽고 말았다.

이후 1세기 동안 경간이 넓은 원형 지붕을 완성하기 위해 갖은 방법이 동원하였으나,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1407년 피렌체 당국은 예배당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돔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브루넬레스코는 이미 돔을 완성할 수 있는 설계도와 모형까지 제작해 놓고 이 집회에 참가하여 자신이 돔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고안한 건축법을 타인들이 도용할 것을 꺼려하여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른 건축가들은 건축 책임을 브루넬레스코에게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가 제안한 방법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브루넬레스코는 ‘미끄러운 대리석 위에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돔 건설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여러 건축가들이 달걀을 세워보려고 시도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처음 제안한 사람이 세워보라’는 말이 나왔다. 브루넬레스코가 달걀 끝을 대리석 위에 깨뜨려 세우자 참석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비웃었다. 이에 브루넬레스코는 ‘내가 원형 지붕을 만드는 방법을 당신들에게 보여준 뒤에는 당신들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바자리는 브루넬레스코와 달걀에 얽힌 이야기를 일화가 발생한 지 130년이 흐른 뒤에 썼고, 벤조니는 그 보다 15년 뒤에 비슷한 이야기를 썼다. 셋클리프 부부는 베조니가 브루넬레스코의 달걀에 관한 이야기를 적당히 개작하여 콜럼버스에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콜럼버스의 달걀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로 지금도 자주 회자되고 있다.

(출처 : 한국해양사연구소, www.seahistory.or.kr)